

인식된 짐스러움이 노인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와 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홍 주 안

권 호 인[†]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노인 자살의 보호 요인으로 알려진 사회참여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호남지역에 거주 중인 남녀 노인 403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자살사고,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 삶의 의미(의미 발견/의미 추구), 사회참여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를 사용한 매개분석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살사고를 강화하는 경로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사고로 가는 직접 경로만이 유의했다. 사회참여를 포함한 조절된 매개분석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 약화를 통해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사회참여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함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 이론, 자살사고, 삶의 의미, 사회참여

* 본 연구는 제1 저자 홍주안의 2018년도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권호인,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E-mail : hikwon14@jj.ac.kr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7%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는 노인 자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2016)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15~64세 인구에서 25.3명인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53.3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더욱이 노인의 자살시도는 충동적이거나 도움 요청의 목적보다 실제적 자살 의지가 높아(Conwell et al., 1998) 오래도록 준비되고 계획적이므로 자살시도에 의한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Witte et al., 2006). 즉, 한 번의 자살시도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처럼 치명적인 노인 자살시도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살 고위험군의 노인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현지, 권정혜, 2012).

노년기의 자살을 사회문화적 맥락 하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은지, 서영석, 고은영, 이소연, 최바울, 2013).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사회문화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정 내 대인관계에서 기대되는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이혜영, 이정애, 오강섭,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인 자살은 개인의 내적 요인과 더불어 대인관계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Joiner(2005)는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을 통해 사회적인 요인들과 자살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자살사고를 일으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제시하였다. 인식된 짐스러움이란 스스로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Joiner, 2009). 좌절된 소속감이란 사회적 고립의 결과로 자신이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된다(Joiner, 2009).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은 대인관계적 특징을 지니며, 사회 지지체계 내에서 적절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지지체계 내에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될 때 발생한다(Stellrecht et al., 2006).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보미, 유성은, 2012; 조민호, 2010; Hill & Pettit, 2014)결과는 자살의 대인관계모형을 지지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하정미, 송영지, 남희은, 2012; Cukrowicz, Cheavens, Orden, Ragain & Cook, 2011)에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년기는 은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노화로 인한 신체 건강의 악화와 같은 발달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즉, 노인들은 경제적 문제 및 신체적 문제로 인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짐이 되는 느낌을 가지기 쉽다(Cukrowicz et al., 2011).

한편, 노인들이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상실하여 자살사고로 이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김현지, 권정혜, 2012; Peterson, 1985). 삶의 의미는 노년층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모두와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노년기의 안

념감에서 중요한 요인이다(Van Orden et al., 2012) 더욱이 노인의 삶의 의미는 발달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Erikson, 1980).

Steger, Frazier, Oishi & Kaler(2006)는 삶의 의미를 인생의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믿음으로 정의하였고, 자신의 삶에 의미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상태인 삶의 의미 발견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삶의 의미 추구의 두 요소로 분류하였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탐색할 수 있으나,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또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다(Steger, Oishi & Kesebir,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은 삶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인식된 짐스러움(Van Orden, Bamonti, King & Duberstein, 2012)과 좌절된 소속감과 유사한 개념인 사회적 배제(Stillman et al., 2009)는 삶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leiman과 Beaver(2013)의 연구에 따르면,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은 삶의 의미 추구와는 관련이 없는 반면, 삶의 의미 발견을 방해함으로써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의미 발견은 2개월 후의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의미 추구는 인식된 짐스러움이나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않았으나 2개월 후의 자살사고 감소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삶의 의미의 발견과 추구가

주요 변인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여 자살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즉, 짐이 되는 느낌과 소속감의 결여를 경험한 노인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했을 경우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를 발달적으로 의미 발견이 중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예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의미 발견’과 ‘의미 추구’로 분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인 관계적 변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자살사고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을 위해 위험요인과 더불어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충해 줄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Smith, Alloy & Abramson,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참여는 자살사고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일영, 2013). 사회참여란 가족이나 이웃, 지역사회 집단 속에서 개인이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따른 역할 수행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에서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의미한다(최성재, 장인협, 2002).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은 취미 활동, 교육활동, 경제활동, 운동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단체활동, 자원봉사 등으로 전개된다(조추용, 2003).

노년기 사회참여는 은퇴 후 사회로부터의 고립이나 역할에 대한 상실로 인한 공허함에서 벗어나 보람되고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활력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이근홍, 2001). 즉, 노년층의 사회참여는 은퇴 후 가족 구성원 간 유

대와 결속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체 자원으로서 기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감을 피하여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일영, 2015). 이러한 점에서 자살사고에 대한 연구에 사회참여 변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회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Patricia(2003)는 퇴직하거나 일하지 않는 노인일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사회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화정, 2005). 임지영(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치활동, 종교활동, 문화 및 취미활동이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종경과 이은주(2010)의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 노인이 비참가노인보다 낮은 자살사고를 보고했다.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중 하나인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노후 생활에서 갖게 되는 소외감을 극복하여 지역 사회에서 연대감을 가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한정란, 김동배, 원영희, 이금룡, 2001),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Yunqing & Ferraro, 2005).

사회참여는 자살 행동에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영향을 주는 인과적이고 역동적인 직접요인이자라기보다는 다른 위험요인의 작용을 완충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참여는 노년층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하며 노인에게 특정 역할과 관계형성의 장으로 기능하기 때문에(장수지, 2010; 주경희, 2011), 소속감의 좌절이나 짐이 된다는 지각이 삶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자살 경로에 있어서, 사회참여활동은 구체적 행동변수로서 자살 위험성에 대한 보호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대인관계 변인과 삶의 의미 약화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인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삶의 의미 발견은 인식된 짐스러움 및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삶의 의미 추구는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삶의 의미 발견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사회참여가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4.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 발견의 매개효과는 사회참여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호남지역의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연구 설명을 듣고 참여의사를 밝힌 만 65세 이상 415명의 노인이 참여하였다. 설문은 의사소통이 원활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질문지 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은 훈련받은 조사자가 읽어주는 문항을 듣고 설문을 완료하였다. 이 중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12명을 제외하였고, 남성이 107명, 여성이 296명으로 총 403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한국판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 모형(Joiner, 2005)에 따라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된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Van Orden 등(2012)의 15문항 버전을 이해영, 이정애, 오강섭(2015)이 13문항으로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하위 척도는 인식된 짐스러움(6문항), 좌절된 소속감(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인식된 짐스러움 .80, 좌절된 소속감 .80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척도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Harlow, Newcomb와 Bentler(1986)가 개발하고 김형수(200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질문지

삶의 의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teger, Frazier, Kaler과 Oishi (2006)가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현, 권성중(2005)이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자신의 삶에 의미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의미 발견(5문항)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망인 의미 추구(5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의미 발견 .86, 의미 추구 .91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척도

사회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Magen과 Peterson(1982)이 개발한 척도를 재인용하여 사용했다. 이 척도는 사회참여 활동의 빈도나 종류(10문항),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태도(5문항),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6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사별 여부, 독거 여부, 만성질환, 기초수급대상자 여부를 포함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각 특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항을 활용했다. 만성질환의 경우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의 유병여부를 평가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2.16 프로그램(Hayes, 2013)을 사용하였다. 먼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 보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통해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발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통해 삶의 의미 발견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참여의 조절효과와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 삶의 의미,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참여 수준이 삶의 의미 발견을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이용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사회 · 인구통계학적 특징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남녀노인 403명으로, 연구 참여자의 사회 ·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107명(26.6%), 여성은 296명(73.4%)으로 연령은 만 65세부터 93세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은 만 77.42($SD = 7.07$)세였다.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인인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자살사고, 삶의 의미 발견, 삶의 의미 추구, 사회 참여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사별여부, 독거여부, 만성질환, 기초수급대상자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자살사고는 인식된 짐스러움, $r = .22$, $p < .01$, 좌절된 소속감, $r = .18$, $p < .01$ 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삶의 의미 발견, $r = -.29$, $p < .01$,

표 1.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07	26.6
	여성	296	73.4
연령	만 65세 ~ 69세	60	15.0
	만 70세 ~ 74세	84	20.8
	만 75세 ~ 79세	94	23.3
	만 80세 ~ 84세	93	23.1
	만 85세 ~ 89세	59	14.6
	만 90세 이상	13	3.2
	평균 만 77.42세 ($SD=7.07$)		
동거상태	독거	209	51.9
	가족	193	47.8
	기타	1	0.2
결혼상태	미혼	2	0.5
	기혼	192	47.6
	이혼	7	1.7
	사별	201	49.9
	기타	1	0.2
교육수준	무학	148	36.7
	초등(국민)학교	123	30.5
	중학교	52	12.9
	고등학교	64	15.9
	전문대	3	0.7
	대학교 이상	13	3.2
한 달 평균수입	50만원 미만	263	65.3
	50~100만원 미만	41	10.2
	100~150만원 미만	23	5.7
	150~200만원 미만	23	5.7
	200~300만원 미만	22	5.5
	300만원 이상	15	3.7
	없음	16	4.0
만성질환 상태	만성질환자	145	36
	질환 없음	258	64
기초수급 대상자	대상자	47	11.7
	미 대상자	356	88.3
$N = 403$			

표 2. 측정변인들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N=403$)

	1	2	3	4	5	6	7	8	9	10	11
1. 자살사고	1										
2. 인식된 짐스러움	.22**	1									
3. 좌절된 소속감	.18**	-.00	1								
4. 삶의 의미 발견	-.29**	-.34**	-.07	1							
5. 삶의 의미 추구	-.22**	-.30**	-.08	.86**	1						
6. 사회참여	-.31**	-.18**	-.34**	.22**	.26**	1					
7. 성별	-.10	-.02	-.17**	-.17**	-.18**	.21**	1				
8. 사별여부	.05	-.11*	.09	.29**	.29**	-.14**	-.45**	1			
9. 독거여부	.01	-.08	.10*	.25**	.23**	-.13**	-.42**	.80**	1		
10. 만성질환	-.07	-.12*	-.02	-.07	-.10*	.10	.08	-.06	-.04	1	
11. 기초수급대상자	.05	-.07	-.04	.03	.01	.06	.06	.06	.10*	.02	1
평균	5.91	15.09	10.14	20.77	22.61	74.64					
표준편차	2.40	6.37	3.81	5.62	6.02	13.01					

* $p < .05$, ** $p < .01$

삶의 의미 추구, $r = -.22$, $p < .01$, 사회참여, $r = -.31$, $p < .01$ 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인식된 짐스러움, $r = -.18$, $p < .01$, 좌절된 소속감, $r = -.34$, $p < .01$ 은 사회참여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인식된 짐스러움은 삶의 의미 발견, $r = -.34$, $p < .01$, 삶의 의미 추구, $r = -.30$, $p < .01$ 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좌절된 소속감은 삶의 의미 발견, $r = -.07$, ns , 삶의 의미 추구, $r = -.08$, ns 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는 삶의 의미 발견, $r = .22$, $p < .01$, 삶의 의미 추구, $r = .26$, $p < .01$ 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고하였다. 성별, 수입, 사별 및 독거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자살사고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삶의 의미를 통하여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예측변인을 인식된 짐스러움으로, 결과변인을 자살사고로 설정한 매개 1의 회귀분석 결과 직접경로, $\beta = .05$, $p < .01$ 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인식된 짐스러움은 매개변인인 삶의 의미 발견, $\beta = -.30$, $p < .001$ 과 삶의 의미 추구, $\beta = -.29$,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표 3. 삶의 의미를 매개변인으로 사용하는 매개분석

매개 1: 인식된 짐스러움 → 삶의 의미 발견, 삶의 의미 추구 → 자살사고				
Variables	B	S.E	T	P
인식된 짐스러움 → 삶의 의미 발견	-.30	.04	-7.26	.0000***
인식된 짐스러움 → 삶의 의미 추구	-.29	.05	-6.40	.0000***
삶의 의미 발견 → 자살사고	-.15	.04	-3.84	.0001***
삶의 의미 추구 → 자살사고	.06	.04	1.49	.1376
인식된 짐스러움 → 자살사고	.05	.02	2.76	.0061**
Bootstrap	Effect	SE	LL95%CL	UL95%CL
<i>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i>				
삶의 의미 발견	.05	.02	.0128	.0931
삶의 의미 추구	-.06	.02	-.0507	.0185
매개 2: 좌절된 소속감 → 삶의 의미 발견, 삶의 의미 추구 → 자살사고				
Variables	B	S.E	T	P
좌절된 소속감 → 삶의 의미 발견	.10	.07	1.40	.1607
좌절된 소속감 → 삶의 의미 추구	.13	.08	1.66	.0976
삶의 의미 발견 → 자살사고	-.17	.04	-4.39	.0000***
삶의 의미 추구 → 자살사고	.05	.04	1.26	.2098
좌절된 소속감 → 자살사고	.12	.03	4.15	.0000***
Bootstrap	Effect	SE	LL95%CL	UL95%CL
<i>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i>				
삶의 의미 발견	-.02	.02	-.0611	.0103
삶의 의미 추구	.01	.01	-.0075	.0421

** $p < .01$, *** $p < .001$

다. 마지막으로 결과변인인 자살사고와 매개변인인 삶의 의미 발견, 삶의 의미 추구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발견, $\beta = -.15$, $p < .001$. 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삶의 의미 발견의 매개효과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 재추출 표본 수는 10,000개였고, 95%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136, 상한값 .0950

으로 신뢰구간에 0의 값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삶의 의미 발견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예측변인을 좌절된 소속감으로, 결과변인을 자살사고로 설정한 매개 2의 회귀분석 결과 직접경로, $\beta = .12$, $p < .001$.는 유의하였으나, 좌절된 소속감이 매개변인인 삶의 의미 발견,

$\beta = .10$, *ns.*과 삶의 의미 추구, $\beta = .13$, *ns.*와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인식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삶의 의미 발견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좌절된 소속감은 삶의 의미 발견이나 추구와는 관련 없이 직접적으로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삶의 의미 발견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참여의 조절효과

삶의 의미 발견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

회참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삶의 의미 발견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2$, $p < .001$. 또한 삶의 의미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참여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0$, $p < .001$, 상호작용은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을 18% 추가하였다, $\Delta R^2 = .18$, $p < .001$. 즉, 그림 1과 같이 삶의 의미의 발견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참여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참여의 조절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

표 4. 사회참여의 조절효과 검증

Outcome variable: 자살사고						
Variables	B	S.E	T	P	LL95%CL	UL95%CL
삶의 의미 발견	-.42	.09	-4.91	.0000***	-.5884	-.2522
사회참여	-.14	.02	-5.50	.0000***	-.1848	-.0876
삶의 의미 발견×사회참여	.00	.00	3.84	.0001***	.0022	.0068
$R^2 = .42$, $\Delta R^2 = .1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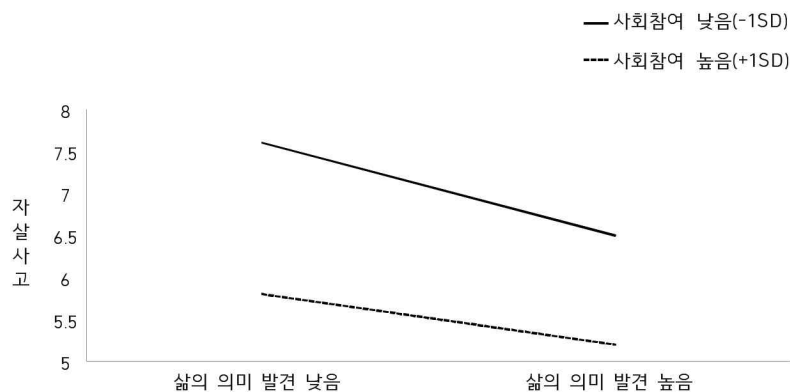


그림 1. 삶의 의미 발견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참여의 조절효과

표 5. 사회참여(조절변인)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i>Conditional effect of X on Y at values of the moderator(s)</i>						
		<i>B(SE)</i>	<i>T</i>	<i>P</i>	<i>Boot LLCI</i>	<i>Boot ULCI</i>
사회참여	Mean - 1SD	-.14(.02)	-6.29	.0000***	-.1876	-.0982
	Mean	-.08(.02)	-4.16	.0000***	-.1242	-.0445
	Mean + 1SD	-.02(.02)	-.93	.3534	-.0802	.0287

*** $p < .001$

회참여의 조건 값(-1SD, Mean, +1SD)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Aiken, West & Reno, 1991).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참여의 -1SD와 평균값은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1SD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참여 수준이 적거나 보통인 집단에서는 삶의 의미 발견에 따른 자살사고 정도의 차이가 크지만 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삶의 의미 발견에 따른 자살사고의 정도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사회참여의 증가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충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된 짐스러움과 삶의 의미,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서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발견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반면,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는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낸 삶의 의미 발견을 중심으로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4에 따라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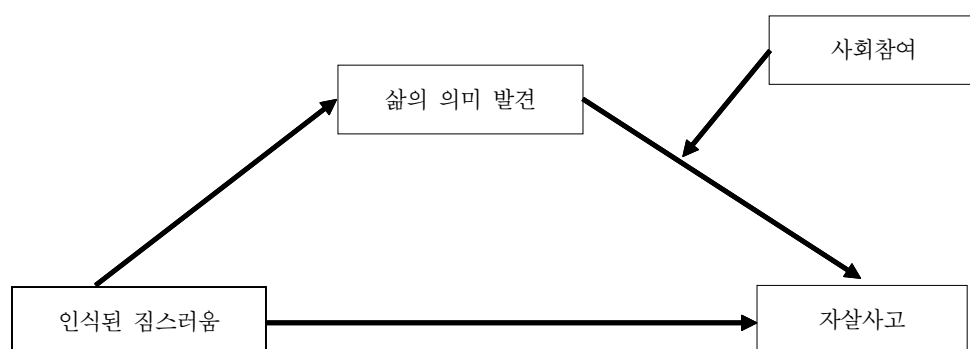


그림 2. 인식된 짐스러움과 삶의 의미 발견,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모형

표 6. 사회참여를 조절변인으로 사용하는 조절된 매개분석

Mediator variable model				
	Outcome variable: 삶의 의미 발견			
	B(SE)	T	P	
인식된 짐스러움	-.29(.05)	-6.05	.0000***	
Dependent variable model				
	Outcome variable: 자살사고			
	B(SE)	T	P	
삶의 의미 발견	-.42(.08)	-4.89	.0000***	
인식된 짐스러움	.06(.02)	2.73	.0067**	
사회참여	-.13(.02)	-5.47	.0000***	
삶의 의미 발견 × 사회참여	.00(.00)	3.98	.0001***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Mediator	Index	SE(Boot)	LL 95%CL	UL 95%CL
삶의 의미 발견	-.00	.00	-.0030	-.0001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beta = .29$, $t = -6.05$, $p < .001$. 다음으로 삶의 의미 발견이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42$, $t = -4.89$, $p < .001$. 삶의 의미 발견과 사회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beta = .01$, $t = 3.98$, $p < .001$.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지수의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하한값 -.0030, 상한값 -.0001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조절변인인 사회참여의 조건 값(-1SD, Mean, +1SD)에 따른 삶의 의미 발견의 조절된 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사회참여가 커질수록 조건부 간접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SD = .0381, Mean = .0205, +1SD = .0028. 다음으로 사회참여의 -1SD와 평균값은 간접효과와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1SD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므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참여 수준이 적거나 보통 수준인 경우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발견과 사회참여의 상호작용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만, 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경우 삶의 의미 발견과 사회참여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표 7. 사회참여(조절변인)의 조건 값에 따른 삶의 의미 발견의 조절된 매개효과

<i>Conditional indirect effect(s) of X on Y at values of the moderator(s)</i>				
Mediator	Moderator: 사회참여	indirect effect (SE)	Boot LLCI	Boot ULCI
삶의 의미 발견	Mean - 1SD	.04(.02)	.0117	.0758
	Mean	.02(.01)	.0057	.0433
	Mean + 1SD	.00(.01)	-.0166	.0233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사회활동 참여의 수준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사회참여가 낮은 노인은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발견이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자살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노년기 대인관계 갈등 및 상실이 노인 자살사고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노인의 자살을 Joiner(2005)의 대인관계 이론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확장하여 삶의 의미와 사회참여를 포함한 경로를 검증하여 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삶의 의미 발견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사회참여가 조절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

속감이 클수록 자살사고는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사고로 이어진다는 자살의 대인관계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하정미, 송영지, 남희은, 2012; Hill & Pettit, 2014).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추구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삶의 의미 추구가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Kleiman과 Beaver(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은 자살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 반면 삶의 의미 발견은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를 훼손함으로써 자살 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삶의 의미 발견이 자살 사고에 대한 개입에서 중요하게 포함될 요소임을 시사한다.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개입은 우울증 환자(Westerhof, Bohlmeijer, van Beljouw, & Pot, 2010)와 말기 암환자(Lee, Robin-Cohen, Edgar, Laizner, & Gagnon, 2006)를 대상으로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개입을 자살 위험성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심리요

인이 노인층의 자살 위험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Heisel, Neufeld & Flett, 2016).

한편,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발견, 삶의 의미 추구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서구 청년층에서 삶의 의미 발견이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 결과(Kleiman & Beaver, 2013)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청년층과 비교하여 노년기에는 자녀들과 분리되어 생활하거나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이는 발달 단계의 측면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현대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전통적인 부모부양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핵가족화로 인한 문화적 규범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김은영, 2002),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최성재, 1985)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족 관계 등에서 느끼는 소속감의 좌절이 노인의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모집되었는 바, 대부분의 노인이 매일같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계의 체험이 부족한 청년층에 비교하여 노인이 소속감의 좌절을 느낀다고 하여도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 경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짐이 되는 느낌을 지각하고 있을 때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노인일수록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짐이 되는 느낌을 지각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취미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등과 같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정되었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노인을 기반으로 표집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비교적 높은 빈도의 사회참여 활동을 영위하는 집단임을 반영하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노인 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시설노인을 비롯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노인들이 포함된 연구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 중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36%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국내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서 보고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89.2%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즉, 본 연구의 표본이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로 이루어져있어 연구의 결과를 전체 노인 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연구대상자에 다수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인식된 짐스러움과 삶의 의미, 자살사고에 대한 반복 측정을 통해 변인들 간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살의 대인관계 모형을 국내 노인층에 적용하였고, 이를 확장하여 삶의 의미와 사회참여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자살예방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즉,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 지각은 자살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삶의 의미의 발견은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강화하거나 차단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로서 발생하는 노인의 자살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치명적인 자살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며 자살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된 짐스러움을 줄이거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삶의 의미의 발견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룩해야할 과제로서 스스로의 가치와 전 생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포함한 자아통합의 측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짐이 되는 느낌을 지각한 노인들의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의 발견과 함께 사회 활동 참여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한다. 즉, 사회참여라는 행동적 보호요인을 강화하여 인식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충시킬 수 있고,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의미 발견의 상호작용은 노년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며 심리적 안정화를 꾀하여 인식된 짐스러움을 낮추고 자

살사고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보미, 유성은 (2012).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 조절과 자살 생각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3), 731-748.
- 김은영 (2002).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제성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 권정혜 (2012).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589-606.
- 김형수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2), 159-172.
- 서화정 (2005).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전략: 노인자살의 영향요인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이근홍 (2001).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노인복지연구*, 12(1), 7-24.
- 이은지, 서영석, 고은영, 이소연, 최바울 (201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63-81.
- 이종경, 이은주 (2010).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 감소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4(3), 17-26.
- 이혜영, 이정애, 오강섭 (2015). 한국판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K-INQ)의 타당화 연구.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1), 291-312.
- 임지영 (2010). 노인의 지역사회참여가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지 (2010). 노인의 사회적 구조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전후기 노인 및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75-100.
- 정일영 (2013). 사회참여가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13(9), 164-177.
- 정일영 (2015). 노후준비와 중고령자 자살생각의 인과모형에 관한 연구: 사회참여,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민호 (2010).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통해서 본 한국군의 자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추용 (2003).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1), 7-34.
- 주경희 (2011).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영역과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연구;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1), 231-264.
- 최성재 (1985). 현대화와 한국노인의 가족에로의 사회적 통합. 한국사회복지학, 6(1), 145-165.
- 최성재, 장인협 (2002).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통계청 (2016). 2016년 국가주요지표 사망원인 통계.
-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 하정미, 송영지, 남희은 (2012).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5(1), 65-8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노인실태조사.
- 한정란, 김동배, 원영희, 이금룡 (2001). 노인 자원봉사의 교육노년학적 의미. 한국성인교육학회, 4(3), 45-67.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Conwell, Y., Duberstein, P. R., Cow, C., Herrmann, J., Forbes, N., Caine, E. D. (1998). Age differences in behaviors leading to completed suicide.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6(2), 122-126.
- Cukrowicz, K. C., Cheavens, J. S., Van Orden, K. A., Ragain, R. M., & Cook, R. L. (2011).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suicide ideation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6(2), 331-338.
- Erikson, E. H. (1980).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Publishers.
- Harlow, L. L., Newcomb, M. D., & Bentler, P. M.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1), 5-21.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eisel, M. J., Neufeld, E. & Flett, G. L. (2016). Reason for living, meaning in life, and suicidal ideation: investigating the roles of key positive psychological factors in reducing suicide risk in community-residing older

- adults. *Aging & Mental Health*, 20(2), 195-207.
- Hill, R. M., & Pettit, J. W. (2014).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suicide related behaviors in clinical samples: Current evidence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0(7), 631-643.
- Joiner, T. E.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US: Harvard University Press, 276.
- Joiner, T. E. (2009). *Why people die by suicide*. Havard University Press.
- Kleiman, E. M., Beaver, J. K. (2013). A meaningful life is worth living: Meaning in life as a suicide resiliency factor. *Psychiatry Research*, 210(3), 934-939.
- Lee, V., Cohen, S. R., Edgar, L., Laizner, A. M., Gagnon, A. J. (2006). Meaning-making intervention during breast of colorectal cancer treatment improves self-esteem, optimism, and self-efficacy. *Social Science & Medicine*, 62(12), 3133-3145.
- Magen, D. J., & Peterson, W. A. (1982). Social role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gerontology.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2(1), 24-25.
- Patricia, A. H. (2003). Evidence-based protocol: Elderly suicide - secondary preven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9(6), 6-9.
- Peterson, E. (1985). The physical... the spiritual... Can you meet all of your patient's need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1(10), 23-27.
- Smith, J. M., Alloy, L. B., Abramson, L. Y. (2006).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ruminat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Multiple pathways to self-injurious thinki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6(4), 443-454.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Steger, M. F., Oishi, S., Kesebir, S. (2011). Is a life without meaning satisfying? The moderating role of the search for meaning in satisfaction with life judgment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3), 173-180.
- Stellrecht, N., Gorden, K. H., Van Orden, K. A., Witte, T. K., Wingate, L. R., Cukrowicz, K. C., Butler, M., Schmidt, N. B., Fitzpatrick, K. K. & Joinder, T. E. (2006). Clinical applications of the 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attempted and completed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2), 211-222.
- Stillman, T. F., Baumeister, R. F., Lambert, N. M., Crescioni, A. W., Dewart, C. N. Fincham, F. D. (2009). Alone and without purpose: life loses meaning following social exclu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686-694.
- Van Orden, K. A., Bamonti, P. M. King, D. A., & Duberstien, P. R. (2012). Does percieved burdensomeness erode meaning in life among older adults? *Aging & Mental Health*, 16(7), 855-860.
- Westerhof, G. J., Bohlmeijer, E. T., van Beljouw, I. M., & Pot, A. M. (2010). Improvement in personal meaning mediates the effects of a life review interven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he Gerontologist*, 50(4), 541-549.
- Witte, T. K., Joiner, T. E., Brown, G. K., Beck, A., Beckman, A., Duberstein, P., & Conwell, Y. (2006). Factors of suicide ideation and their relation to clinical and other indicators in older adul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4(1-3), 165-172.
- Yunqing, L., Ferraro, K. F. (2005). Volunteering and Depression in Later Life: Social Benefit or Selection Process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1), 68-84.
- 논문 투고일 : 2018. 05. 09
1 차 심사일 : 2018. 05. 14
게재 확정일 : 2018. 08. 27

The Influence of Perceived Burdensomeness on Suicidal Ideation of Older Adults: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eaning in Life and Social Participation

Juan Hong

Hoin Kwo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has attempted to identify whether or not the effect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of the elderly on a suicidal ideation is mediated by the meaning in life and, during this process, examined if social participation known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elderly suicide has a moderating effect. For this, a total of 403 elderly men and women residing in Honam area have been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among whom self-report surveys have been conducted as to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meaning in life (presence of meaning/search for meaning) and social participation. The mediating analysis with the use of the process macro has identified the path where the perceived burdensomeness encourages a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presence of the meaning in life. On the other hand, the thwarted belongingness ha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only in a direct path to a suicidal ide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moderated mediating effects, including social participation have found that social participation does mediate the path to a suicidal ideation caused by the perceived burdensomeness through the presence of the meaning in life, verifying its moderated mediating effects.

Key words :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suicidal ideation, meaning in life, social participation